

靑에 공 넘긴 민주, 장외투쟁 동력 고심

김한길, 박대통령 역제안 거부 '일대일 담판' 고수

여야, 국정원 국조 증인 원세훈·김용관 등 29명 확정

민주당이 7일 5자 회담을 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제안을 거절하고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시장 앞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현 정국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5자회담 역제안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박 대통령께 단독회담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며 김한길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견문에서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담판을 통해 정국을 푸는 해법을 찾는 것이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박 대통령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대표가 청와대 제의를 거절한 것은 '둘러리'로 대화의 장에 나설 수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고인을 거듭하 "제1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당내 반대 기류가 거세져 수용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 장외투쟁 일주일째를 맞은 민주당은 청와대 제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도 서울시장 앞 광장 내 '천막당사'에서 가지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속내가 복잡하다. 김 대표 스스로 "형식과 외연에 얽매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정각 회담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

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말미에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 거절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정형홍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실장은 또 "국민을 위해 만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말미에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 거절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정형홍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실장은 또 "국민을 위해 만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말미에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 거절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정형홍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실장은 또 "국민을 위해 만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말미에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 거절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정형홍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실장은 또 "국민을 위해 만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사건 은혜·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청장과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정보분석과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경찰 뒷문'을 열어준 전 국정원장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선 국정원 댓글 게시와 관련, 원 전 원장, 댓글 사건 및 '검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최모씨와 이들의 지휘 상관이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외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등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포함됐다.

댓글 사건 은혜·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청장과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정보분석과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경찰 뒷문'을 열어준 전 국정원장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선 국정원 댓글 게시와 관련, 원 전 원장, 댓글 사건 및 '검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최모씨와 이들의 지휘 상관이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외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등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포함됐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7명 예결위원에

지역예산 확보 큰 기대...새누리 26명·민주 21명 등 전체 50명 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0명 국회의원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중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두거나 광주·전남 출신인 국회의원이 10명이나 돼 지역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은 새누리당 26명, 민주당 21명, 통합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예결 특위 위원은 김광

림·김용태·김도읍·김희국·류성걸·박상은·이학재·이장우·안효태·김영우·유승우·함진규·황영철·염동열·송광호·홍문표·정수성·김종태·김성찬·박대출·민병주·안종범·이근현·이진복·이현재·주영순 의원 등 2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최재천·김광진·김승남·김영록·김우남·김윤덕·남인순·문병호·박수현·신장웅·유기흥·

유대운·유성열·윤관석·윤호중·이찬열·임내현·조경태·조정식·한정애·홍의락 의원 등 21명이 특위 위원을 맡게 됐다.

통합진보당 오병윤·정의당 심상정·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비교섭단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중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민주당 김영록·임내현·김승남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무소

속 박주선 의원 등 5명. 여기에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새누리당 주영순, 민주당 김광진 의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나 광주·전남 출신인 민주당 최재천(해남)·문병호(영암)·신장웅(고흥) 의원 등이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근현 의원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김광림 의원, 야당 간사는 최재천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국가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이 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천]	비고
2012타경 36133	1	동구 용산동 산39-9 5층 504호 59.76㎡	아파트	52,500,000	2013.1.21. 현재관 리비10개월분미납
2013타경 766	1	관산구 월계동 763-2 청담8차리안아파트 804동 5층 506호 59.90㎡	아파트	91,000,000	2013.1.31. 현재관 리비8개월분미납
2013타경 2342	1	나주시 대호동 1020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110동 4층 401호 84.97㎡	아파트	151,000,000	2013타경 10480(중도 2분)의 1전부
2013타경 2502	1	북구 양산동 776 지에스그린자이1차아파트 105동 26층 2601호 84.9903㎡	아파트	102,000,000	공유자선액 지분2분의 1전부
2013타경 2670	1	서구 상무마을40단지 14,105동 4층 404호	아파트	165,000,000	[유촌동, 상무마을미 1주권]아파트 184.87㎡
2013타경 4546	1	북구 신영동 549 청담자이1단지 108동 1층 102호 84.9893㎡	아파트	238,000,000	238,000,000
2013타경 4935	1	서구 문정로61,103동 12층 1201호 [공공주택, 우미아파트] 95.79㎡	아파트	166,000,000	[유촌동, 상무마을미 1주권]아파트 184.87㎡
2013타경 5976	1	서구 문정로 25, 102동 10층 1003호 [공공주택, 금호동 쌍봉예가 만호마을] 153.1206㎡	아파트	455,000,000	2013.3.29. 현재관 리비1,775,320원 미납
2013타경 7224	1	북구 문흥동 1010-8 303동 3층 301호 59.970㎡	아파트	105,000,000	105,000,000
2013타경 11513	1	남구 회례로 1174-14, 203동 14층 1401호 [주월동 호반베르디움2차] 84.858㎡	아파트	280,000,000	2013타경 17924(중도 2분)의 1전부
2012타경 2771	1	남구 양과동 746 1402㎡ [공유자권원경지분 6분의 1전부][분도2기소채하여분도기권원경지분 1전부]	전	6,542,760	농지취득자격증명 있음.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28248	1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산216 3769㎡ [공유자선액지분5분의 1전부]	임야	3,120,480	임야매각, 분도소 기소채하여지분지분 5분의 1전부
2012타경 32131	1	나주시 돌강면 인죽리 343-3 1253㎡	임야	48,488,300	임야매각, 주택(대지)사유 11주매각제외
2012타경 34670	1	공곡군 죽곡면 봉정리 316 148㎡	대	6,919,000	임야매각
2012타경 35260	1	영광군 묘향면 월림리 산 12 4165㎡	임야	2,374,050	농지취득자격증명 있음
2013타경 1004	1	화순군 도암면 우지리 538-1 595㎡ [현황: 목조건 [분도소채, 분도기권원경지분 1전부]	전	6,832,000	임야매각, 주택(대지)사유 11주매각제외
2013타경 1646	1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94-10 1983㎡ [현황: 목답]	대	51,5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있음
2013타경 1790	1	장성군 북일면 신촌리 716-5 1018㎡	대	12,21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있음

여의도 인사이드

한창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엔 3가지의 미스터리가 있다.

민주당의 간판 스타인 손학규·정동영 삼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의 10월 재보선 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그것. 이 설은 올 4월 재보선 이후 나타나 본인의 강력한 부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7일 "중요 인사의 출마설은 대부분 ▲자가발전 ▲측근권유 ▲지도부의 희망사항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경우에도 이 세가지 내에 진원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민주당에서는 안 의원 측 후보를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박 의원의 출마설이 행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출마 후보를 하고 있는 이낙연, 주승용 의원 측에서는 "박 의원 카드는 '새정치와 구정치' 대립 구도를 불러오려 필패카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고문=10월 재보선 전주 출마와 내년 지방선거 전북지사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 고문 출마설 역시 안 의원 측 후보에게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 의원 측에서는 대선후보를 한 정치인을 폄하하는 '소문'에 불과

민주당 중진 3명 선거 출마설...본인 부인에도 확산되는 까닭은

자가발전? 측근권유? 지도부 희망사항?

정치권 "세가지 안에서 진원이 있을 것" 예측

◇박지원 의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3선의 박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겸 문화관광부장관, 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과 정부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 고문은 6일 K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10월 재보선 전주 출마설에 대해 "그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고문의 경우, 재보선보다는 내년 전북지사 선거 출마설에 더욱 비중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당권이나 대권도전의 여지가 희미해져 갈 경우 정치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손학규 고문=10월 재보선 수원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세력화에 대비하기 위해 손 고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손 고문 본인은 물론 측근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이 어려운 재보선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손 고문을 불러낸다는 불현듯 심기도 감지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구의 당 유력 후보로 손 고문의 측근 인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도 출마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박지원 의원 정동영 고문 손학규 고문

오병운 의원 '국정원→해외정보원' 발의

통합진보당 오병운 의원은 7일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을 폐지, 정권 안보기관으로 전락한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천]	비고
2013타경 5846	1	장성군 남면 월정리 175-5 295㎡	대	136,266,100	임야매각, 체외의 건물포함
2013타경 6597	1	화순군 화순읍 향정리 154-2 87㎡	대	232,620,450	임야매각, 체외의 건물포함, 건물유착분할허가소매각제외
2013타경 7101	1	북구 동문대로134번길 17-19 1층61.42㎡ 2층51.0㎡ 지하실8.1㎡ 부속건물 면적 1.0㎡	주택	97,411,740	임야매각, 체외의 건물포함
2013타경 7347	2	관산구 지족동 274-4 942㎡ [현황:목답][공유자선액지분2분의 1전부]	대	47,571,000	수목매각제외,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3	동소 274-5 1032㎡ [현황:목답][공유자선액지분2분의 1전부]	대	55,728,000	물건번호2와비동일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